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2010년 8월 13일

허베이(河北)성 경제현황 및 발전전략



김 부 용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 권역별·성별 연구단 초청연구원 (furongjin@kiep.go.kr, Tel: 3460-1282)

□ 허베이성은 여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처졌으나, 최근 들어 연해지역 개발 가속화와 징진지(京津冀)경제권의 배후기지로 부각되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허베이성은 연해도시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다른 동부 연해지역보다 경제수준이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연해강성(强省)’이란 목표를 내걸고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환보하이만(環渤海灣) 육성정책의 일환인 징진지경제권의 배후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으로부터 이전되어 오는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데, 서우두철강(首都鋼鐵)과 베이징코크스(北京焦化場)의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임.

□ 허베이성의 연해경제벨트 구축 가속화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주고 있음.

- 탕산(唐山), 친황다오(秦皇島), 창저우(滄州) 등 연해도시의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으므로 소비재 품목의 내수공약을 고려할 수 있고, 여러 개발구들의 값싼 토지와 우대정책을 활용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형 항만의 건설에 따른 물류업의 빠른 성장은 동북아 물류 허브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에 커다란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이 조만간 국무원의 비준을 받게 될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은 징진지 지역 진출 시 각 지역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지역선정을 해야 함.

- 금융, 보험, 문화, 요식업 등 3차산업의 경우 베이징으로의 진출이 바람직하며, 선진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은 톈진으로, 중화학공업 및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허베이성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함.
- 허베이성에는 염전이 많고 연해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유흥지가 많으므로 소금가공, 양식가공 및 종자산업 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1. 허베이(河北)성 개황

- 베이징(北京)과 톈진(天津) 2대 직할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보하이만에 인접해 있고, 환 보하이경제권에 포함되어 있음.
- 허베이성은 성도(省都) 스자좡(石家庄)을 비롯하여 11개 지급시(地級市)와 22개 현급시(縣級市), 108개 현과 6개 자치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8만 km²(한국의 0.8배)에 달하는 면적에 인구 7,000만 명(한국의 1.4배)이 거주하고 있음.
- 허베이성은 중국의 25개 주요 철도간선과 27개 국가급 도로간선을 보유하고 있는 등 3 북지역(동북, 서북, 화북)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의 요충지이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석탄, 석유,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함.

그림 1. 허베이성 위치도



자료: www.naver.com.

그림 2. 허베이성 행정구역도



자료: www.5473.com.

- 허베이성은 동부 연해지역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중부지역과 비슷한 경제 발전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최근 ‘연해강성(強省)’을 목표로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최근 친황다오(秦黃島), 탕산(唐山), 창저우(滄州) 등 연해지역의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성장축이 형성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보하이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베이징(京), 톈진(津) 및 허베이(冀)를 하나로 묶는 징진지(京津冀)경제권의 배후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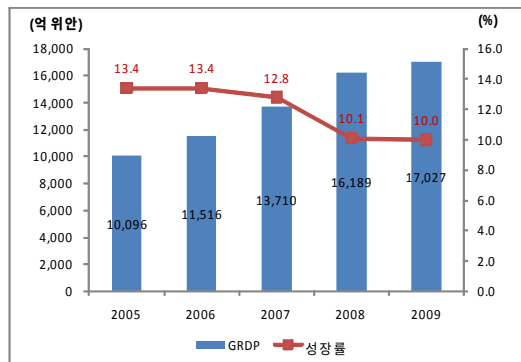
2. 허베이성 경제현황

가. 경제발전 현황

■ 허베이성은 여타 동부 연해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었으나 최근 들어 환보하이경제권의 성장과 징진지경제권의 배후기지로 부각되면서 13%대의 고속성장을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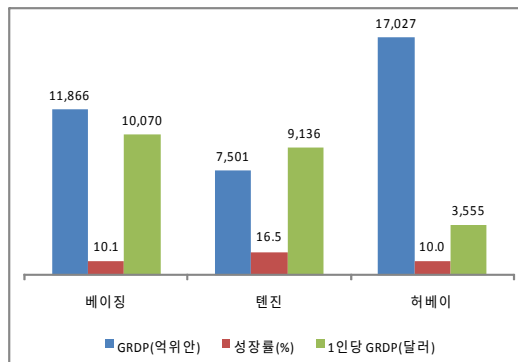
- 2009년 허베이성 지역내총생산(GRDP)은 1조 7,02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 증가해 중국 전체 평균수준(8.7%)을 웃돌았으나 지방 평균수준(10.3%)보다는 낮음(그림 3 참고).

그림 3. 허베이성 GRDP 추이



자료: 『허베이경제연감2009』; 허베이성 통계공보(2009).

그림 4. 징진지경제권 GRDP비교(2009년)



주: 각 지표의 단위와 비율은 별개임.

자료: 2009년 성시별 통계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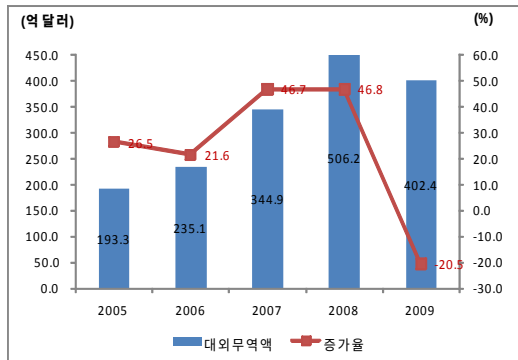
- 도시별로는 탕산시와 창저우시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절대 규모면에서도 탕산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월등히 높음(부표 1 참고).
- 산업구조는 2차산업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3차 산업 비중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2009년 허베이성 GRDP에서 1차산업이 2,218억 9,000만 위안, 2차산업이 8,874억 9,000만 위안, 3차산업이 5,932억 8,000만 위안을 차지하여 산업별 비중은 13.0: 52.1: 34.9로 중국 전체의 산업별 비중(10.6: 46.8: 42.6)에 비해 2차산업 비중이 훨씬 더 높음.
- 2009년 허베이성 1인당 GRDP는 2만 4,283 위안(약 3,555달러)으로 중국 전체에서 12위이며, 이는 동부 연해지역 11개 성시(省市)에서 하이난(海南) 다음으로 가장 낮으며, 내륙지역인 네이멍구(內蒙古)나 지린(吉林)보다도 낮은 수준임.¹⁾

- 허베이성의 1인당 GRDP는 베이징이나 톈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는 징진지경제권 통합에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음(그림 4 참고).

■ 2009년 허베이성의 대외무역은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소폭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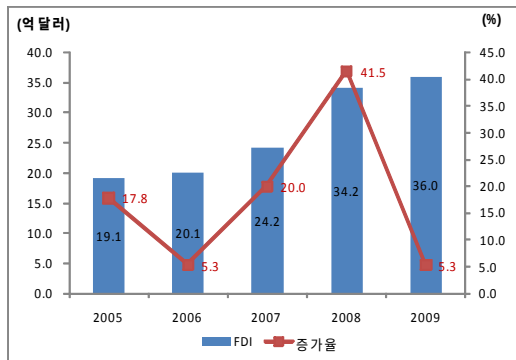
- 2009년 허베이성의 대외무역액은 전년대비 20.5% 하락한 402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그 중 수출이 192억 4,000만 달러로 34.1% 감소, 수입이 210억 1,000만 달러로 2% 감소하였음(그림 5 참고).

그림 5. 허베이성 대외무역액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림 6. 허베이성 FDI 추이



자료: 『허베이경제연감 2009』; 허베이성 통계공보(2009).

- 교역대상국별로는 미국과 한국에 대한 수출이 각각 22억 7,000만 달러와 15억 2,00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호주와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이 각각 52억 5,000만 달러와 31억 달러로 가장 많음(표 1 참고).

표 1. 허베이성의 주요 교역국(2009년)

(단위: 억 달러, %)

수출				수입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가율	순위	국가명	금액	증가율
1	미국	22.7	-25.3	1	호주	52.5	25.5
2	한국	15.2	-62.7	2	브라질	31.0	15.6
3	독일	12.6	10.8	3	인도	22.8	-40.4
4	일본	10.6	-20.7	4	미국	15.9	-6.3
5	러시아	9.4	-6.9	5	일본	14.2	8.9
6	인도	6.2	-18.1	6	독일	12.7	-5.7
7	이탈리아	6.2	-38.0	7	한국	9.9	18.3

자료: 한국무역협회.

1) 여기서 동부 연해지역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광둥(廣東) 및 하이난(海南)을 가리킴.

- 2009년 한국과 허베이성 간 교역규모는 25억 1,000억 달러로 전년대비 48.8% 감소하였으나, 이는 허베이성의 대한국 수출 급감에 기인한 것이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18.3% 증가하였음.
- 2009년 한국의 대중국 수출 성별 분포에서 대허베이성 수출은 10위를 차지하며, 수출은 철강, 보일러,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표 2 참고).

표 2. 한국의 대허베이성 주요 수출품목(2009년)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코드	수출품목명	금액	증가율	비중
1	72	철강	168	-22.4	17.0
2	84	보일러, 기계류	159	140.4	16.0
3	39	플라스틱 및 그 제품	123	-4.2	12.4
4	28	무기화합물	111	63.9	11.2
5	74	동 및 그 제품	92	125	9.3
6	85	전기기기, TV, VTR	75	-5.1	7.6
7	27	광물성연료, 에너지	45	70.6	4.5
8	87	일반차량	28	98.2	2.8
9	26	광, 슬랙, 회	28	-13.7	2.8
10	48	지, 판지	21	-3.8	2.1
		총계	991	18.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09년 허베이성의 FDI는 전년대비 5.3% 증가한 3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그림 6 참고).
- 그중 장비제조, 의약, 식품, 건축 재료 등에 대한 투자가 14억 8,000만 달러로 전체 FDI의 41%를 차지하였음.
- 지역별로는 홍콩, EU, ASEAN, 미국, 일본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대허베이성 FDI는 2008년 기준 7,597만 달러로 허베이성에서 유치한 전체 FDI의 2.2%를 차지함.
- 허베이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들로는 LG전자, 삼양그룹, 오리온식품, 한라기계, 롯데마트 등 400여 개가 있음.

2) 경제정책 방향

- 허베이성은 내수진작, 경제구조조정과 연해경제벨트 구축 가속화를 2010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음.

■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소비의 견인력을 향상시킴.

-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을 늘리고, 퇴직자의 기본양로금 및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 보장금 지급수준을 높여 주민들의 소비능력을 향상시킴.
- 도시의 유통 인프라와 플랫폼 구축을 가속화하여 도시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 유통망 건설과 농산물 유통체계를 강화하여 농촌지역의 소비도 활성화함.
- 농촌의 유통망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만촌천향(萬村千鄉) 시장공정²⁾과 ‘쌍백(雙百) 시장공정³⁾’을 계속 심도있게 추진함.
- 소비열점(消費熱點)을 만들고 서비스 소비를 촉진함.
- 서민용 중저가, 중소형 상품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베이징과 톈진 주민들이 허베이로 와서 주택을 구입하도록 적극 인도하여 주택소비를 촉진함.
- 농촌의 정보화 건설을 가속화하고 3망 융합(방송, 통신, 인터넷 융합)을 추진하여 정보 소비를 촉진하며 영화,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 소비와 관광레저 소비를 촉진함.

■ 경제구조조정을 중심으로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함.

-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에 박차를 가해 철강산업, 장비제조업, 석유화학공업의 3대 기둥산업을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키움.
- 2010년 3월 허베이철강그룹(河北鋼鐵集團)⁴⁾은 19억 위안을 출자하여 중국 최대 국영 투자회사인 중신(中信)그룹 자회사 중신타이푸(中信泰富, Citic Pacific)로부터 스자좡 철강유한회사(石家莊鋼鐵有限公司)의 지분 80%를 인수하였음.⁵⁾

2) ‘만촌천향(萬村千鄉) 시장공정’은 농촌의 소비환경을 개선하고 농민들의 생산,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 상무부에서 2005년부터 실시한 농촌의 현대 유통망 구축공사임. 정부는 재정자금배정을 통한 보조 혹은 할인의 방식으로 도시의 체인점과 슈퍼마켓 등 유통기업이 농촌으로 확장되도록 인도하며 ‘농가점’ 형태로 보급함.

3) ‘쌍백(雙百) 시장공정’은 농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농민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대형 농산품 도매시장 100개와 대형 농산품 유통기업 100개를 지지하여 배송센터, 저장, 품질안전, 검증, 폐기물 처리 및 냉동 등 시스템을 건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임.

4) 허베이철강그룹은 2008년 탕산철강과 한단철강의 합병으로 탄생하였으며 2009년에 후속으로 청더티타늄을 합병하였음. 영국의 Metal Bulletin지가 조강생산량을 기준으로 발표한 2009년 세계 철강업체 리스트에서 허베이철강은 세계 2위를 차지하였으며 중국내에서는 상하이바오스틸을 제치고 1위로 기업을 토하고 있음. *Global Times*(2010. 6. 17), “Five Chinese firms listed world's top 10 crude steel producers.”

5) 『河北日报』(2010. 3. 20), 「河北钢铁产业联合重组再次取得重大进展」.

- 석탄산업에서는 2008년 진닝(金能)그룹과 평핑(峰峰)그룹이 합병하여 지중(冀中)에너지 그룹이 탄생하였으며, 2010년 6월 지중에너지는 5억 위안을 투자하여 허베이항공을 설립, 최대 주주가 되었음.⁶⁾
- 중앙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맞춰 신에너지, 전자정보, 바이오의약 등 신흥산업을 적극 육성함.
- 바오딩전기밸리(保定電谷), 닝진징룽(寧晉晶龍)실리콘밸리⁷⁾ 등 신에너지산업기지; 랑팡, 스자좡, 칭황다오 등 도시의 전자·정보산업기지; 화베이제약 신제품공업원, 스자좡제약공업원 등의 건설이 가속화됨.⁸⁾
- 서비스업을 대폭 발전시켜 새로운 경제성장축을 형성함.
- 베이징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부동산 산업과 관광업을 발전시키고, 교통과 역사문화 우위를 이용하여 물류와 문화산업을 적극 발전시킴.

■ 대외개방을 확대하여 부민강성(富民强省)을 지향함.

- 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여 철도, 고속도로, 항만을 건설하는 한편 항공업을 더욱 중시하여 스자좡, 탕산, 장자커우, 청더, 칭황다오, 한단 등 지역의 공항 건설과 개조에 박차를 가함.
- 항만 건설을 가속화하고 임해산업과 연해도시를 발전시켜 ‘연해강성(沿海强省)’을 실현함.
- 베이징 및 톈진과의 연결을 강화하여 징진지 일체화를 추진함.
- 베이징과 톈진의 배후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베이징과 톈진으로부터 이전되는 자금, 프로젝트, 산업, 인재, 기술, 소비 등을 유치함.
- 외자, 특히 베이징과 톈진의 자금을 적극 유치하며,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상품 구조조정으로 수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기업의 성외 진출도 장려함.

6) 허베이항공은 동베이(東北)항공이 자산 재편성후 이름을 바꾼 회사이며 지중에너지, 쓰촨(四川)항공 및 선양중궈이(沈陽中瑞)투자회사가 각각 62%, 35% 및 3%의 지분을 소유함. 『北京商报』(2010. 6. 29), 「冀中能源跨界航空稀释风险」. (<http://www.soubaoad.com/newsletter/3915.shtml>)

7) 닝진징룽(寧晉晶龍)실리콘밸리는 허베이성 싹타이(邢臺)시 닝징(寧晉)현 소재 단결정 규소 생산기지임.

8) 바오딩시에는 남향의 건물 벽 전체가 솔라 모듈로 된 세계 첫 태양광 호텔(5성급)이 있음.

3. 허베이성 발전전략

- 허베이성은 여타 성(省)들에 비해 연해도시가 낙후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487km에 달하는 해안선을 이용하여 연해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최근 논의 중인 징진지도시권에서 베이징과 톈진의 배후기지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두 도시로부터 이전되어 오는 산업을 유치할 계획임.

가. 연해경제벨트 구축전략

1) 항만 클러스터 구축

- 항만 건설을 가속화하여 탕산항(唐山港), 친황다오항(秦皇島港), 황화항(黃驊港)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 항만 클러스터를 구축함.
- 징탕항(京唐港)과 차오펬이덴항(曹妃甸港)을 하나의 항구로 묶은 탕산항은 에너지와 원자재(광석, 석탄, 원유, 천연가스 등) 등 대량화물을 운송하는 글로벌 종합항만으로 건설될 계획임.
- 2009년 탕산항의 화물처리량은 1억 7,000톤을 넘겼으며⁹⁾ 2020년까지 5억 톤(부산항의 2배)을 처리해 중국 북부 최대의 항만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 허베이성의 1호 공정인 차오펬이덴 항구에는 현재 25만톤급 광석 부두 2개가 개통되었고 추가로 2개가 더 건설될 계획이며,¹⁰⁾ 원유와 석탄 부두도 건설되었음.¹¹⁾
- 차오펬이덴은 보하이 해역에서 유일하게 항로와 내만을 굴착하지 않고 여러 개의 30만톤급 대형 부두를 건설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고 있음.
- 친황다오항은 잡화와 컨테이너 운송 기능을 확대하여 단순한 에너지 수출항에서 종합항만으로 거듭날 계획임.

9) 그중 징탕항의 화물처리량이 1억톤으로 전년대비 85.7% 증가, 차오펬이덴항의 화물처리량이 7,018만톤으로 전년대비 118.8% 증가하였음. 『河北省交通运输厅港航管理局』(2010. 1. 11), 「唐山港货物吞吐量突破1.7亿吨」. (http://ghj.hbsjtt.gov.cn/erji/content/2010-01/11/content_101341.htm)

10) 지난 5월 광석 부두 2기 공사 프로젝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비준을 받았으며, 총 31억 위안이 투입될 계획임. 『燕赵都市报网』(2010. 5. 25), 「曹妃甸矿石码头二期工程项目得到核准批复」. (<http://yanzhao.yzdsb.com.cn/system/2010/05/25/010505519.shtml>)

11) 차오펬이덴 석탄 부두 추가 건설 및 2기 공사 또한 2009년 12월 국가발개위의 비준을 받았음.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사를 참고 바람. 『世界工厂网』(2009. 12. 17), 「国投曹妃甸煤炭码头续建工程获批」. (<http://info.ch.gongchang.com/business/Chemical/2009-12-17/81247.html>)

- 부동항(不凍港)인 친황다오항은 석탄과 석유 운송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최대의 에너지 수출항으로서, 석탄의 해외 수출과 '북부의 석탄을 남부로 운송' 하는 허브임.
- 잡화 운송 기능의 확대로 2009년 친황다오항의 잡화 물동량은 2,842톤에 달했으며, 전년대비 26.2% 증가하여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음.¹²⁾
- 황화항은 석탄 운송 외에 벌크 화물, 잡화, 컨테이너, 농산물, 액체화학공업제품으로 운송 기능을 확대하여 종합항만으로 개장함.¹³⁾
- 황화항은 중국 제2의 에너지 수출항으로 서부의 석탄을 동쪽으로 운송하고, 북부의 석탄을 남부로 운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2) 임해산업 클러스터 구축

- 임해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철강과 석유화학의 2대 산업을 선두로, 장비제조, 정밀화학공업, 신에너지, 선진제조업, 농식품가공 등의 산업을 주도로 하는 경제를 발전 시킴.
- 중점적으로 차오펬이텐공업구(曹妃甸工業區), 창저우임해공업구(滄州臨海工業區), 친황다오임해경제구(秦皇島臨港經濟區) 등 산업단지의 건설을 가속화함.
- 차오펬이텐공업구는 철강, 장비제조, 석유화학, 물류 등 임해산업을 발전시키고, 심수 해안선과 임해자원을 잘 이용함.
- 창저우임해공업구는 종합항구 및 한황(邯黃)철도¹⁴⁾ 건설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 물류를 중심으로 하는 임해산업을 발전시켜 중부와 남부지역의 새로운 엔진으로 부상함.
- 친황다오임해경제구는 항구의 기능을 확장하여 첨단기술, 선진제조, 식품가공, 물류, 관광 등 산업을 크게 발전시켜 환보하이경제권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함.

12) 『秦皇島新聞網』(2009. 12. 31), 「秦皇島港雜貨吞吐量再創新高」. (<http://www.qhdxw.com/view/51847>)

13) 『황화항 발전계획』에 따라 황화항은 석탄항구, 벌크항구, 종합항구 및 하구(河口)항구로 개장됨. 석탄항구는 북부의 석탄을 남방으로 운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벌크항구는 철광석, 원유 등 벌크 화물을 중심으로 석탄, 액체화학공업제품 등 기타 벌크 화물을 운송함. 종합항구는 주로 일반 벌크 화물과 잡화, 컨테이너, 완성유, 액체화학공업제품을 운송하고 하구항구는 현지생산과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고 저장, 물류, 상업무역 등의 활동을 펼침. 河北省交通運輸港航管理局(2009. 1. 10), 『省政府批准修訂的《黃驊港總體規劃》』. (http://ghj.hbsjtt.gov.cn/erji/content/2009-01/10/content_68281.htm)

14) 한황(邯黃)철도는 한단으로부터 창저우 황화에 이르는 총 길이 420km의 철도로서, 허베이성의 '연해강성' 전략 및 연해-내륙 연결전략에 따라 2009년 8월 착공되었고 부설기간은 2년 반임.

3) 연해도시 클러스터 구축

■ 항구도시 건설을 강화하여 항구, 항구도시, 임해산업 3자가 상호 연결, 발전하도록 함.

- 친황다오항, 탕산항, 황화항 3대항 건설을 핵심으로 주변 현역(縣域)도시 및 개발구를 통합하여 탕산, 친황다오, 창저우 3개 연해도시를 발전시킴.

나. 징진지도시권을 통한 발전전략

1)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

■ 언론에 따르면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은 이미 국무원에 올라가 논의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될 계획이라고 함.¹⁵⁾

-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은 2004년부터 국가발개위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하여, 현재 비교적 완벽한 체계를 갖추었음.
- 이른바 '8+2' 모델로 짜인 이 구역계획은 베이징과 톈진 2개 직할시와 스자좡, 친황다오, 탕산, 랑팡, 바오딩, 창저우, 장자커우, 청더의 8개 도시가 묶여 '1시간 경제권'을 형성하게 됨.
 - 베이징은 금융, 보험, 부동산, 요식업 등 3차산업 위주로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학, 연구기관, 인재 등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산업을 발전시키며 저부가가치 제조업은 점차 이전시킴.
 - 톈진은 현재의 가공 제조업과 항만 우위를 기반으로 전자·정보, 자동차, 바이오의약, 장비제조, 신에너지 및 환경보호설비 등 선진제조업의 중심지로 육성될 계획이며, 물류, 금융, 보험 등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임해 중화학공업도 발전시킬 계획임.
 - 허베이의 8개 도시는 베이징과 톈진의 배후도시 역할을 맡아 원자재 공급기지, 중화학공업기지, 현대화 농업기지 및 관광레저기지로 육성될 계획이며, 베이징과 톈진으로부터 이전되어 오는 산업을 유치하게 됨.

2) 징진지도시권내 산업이전 사례

15) 『21세기经济报道』(2010. 5. 20), 「京津冀都市圈区域规划将出: 中国经济“第三极”正式浮现」.
(<http://www.soubaoad.com/newsletter/3802.shtml>)

■ 서우두철강(首都鋼鐵) 제철소가 베이징에서 탕산의 차오페이텐공업구로 옮겨진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임.

- 2005년 국무원은 서우두철강회사의 구조조정 방안을 비준하였고, 서우두철강회사와 탕산철강(唐山鋼鐵)은 공동으로 차오페이텐에 서우강징탕철강(首鋼京唐鋼鐵)유한회사를 설립하였음.¹⁶⁾

○ 서우강징탕철강은 2007년 착공하여 현재 1기 공사가 완공되었고 연산 970만 톤에 이름.

- 중국 최초의 철강회사인 서우두철강이 베이징에서 탕산으로 이전한 것은 올림픽을 앞두고 환경오염을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철강회사들의 합병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몇몇 철강회사가 중국 전체 철강 생산량을 좌우하게 하려는 중국 정부의 요구에 부응한 것임.

- 서우강징탕철강이 차오페이텐 항만에 철광석 부두를 건설함에 따라 국외로부터 수입한 철광석은 부두에 도착하면 10여분 만에 제강소로 옮겨지며, 냉강압연 작업장에서 나온 철강 완성품 또한 신속히 화물선에 옮길 수 있어 운송비가 대량으로 절감됨.

■ 베이징코크스공장(北京焦化場)도 2006년 말 베이징에서 탕산으로 이전하였음.

- 베이징코크스는 당시 대량의 석탄 사용으로 심각해진 베이징시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에 세워졌으며, 그동안 베이징시 난방과 연료용 가스 공급의 80%를 담당해왔음.

- 베이징코크스공장이 탕산으로 이전한 것은, 살기 좋은 도시를 지향하는 베이징이 공기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오염유발업체의 철거이전작업의 일환임.

■ 서우두철강이나 베이징코크스는, 이전을 유치한 허베이성의 공기오염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새로운 공장 설립 시 선진 설비로 기존의 낙후 설비를 대체함.

- 또한 선진적인 환경보호 기술을 도입하여 오염물질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면 폐수는 생산에 재활용하고 폐기는 청결가스로 전환하여 주민들에게 공급하기도 함.

-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으므로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16) 『新浪网』(2005. 10. 23), 「首钢京唐钢铁联合有限责任公司成立」.
(<http://news.sina.com.cn/c/2005-10-23/11347240372s.shtml>)

4. 시사점

■ 최근 허베이성은 연해강성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음.

- 연해도시인 탕산, 칭황다오, 창저우는 허베이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면서 내수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으므로, 내수를 겨냥한다면 이들 지역으로의 진출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이들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정부의 내수 부양책에 힘입어서가 아니라, 항만,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 산업단지 건설 등 연해지역 개발정책이 효력을 발생한 결과로 평가됨.

- 임해산업단지, 특히 차오페이텐공업구의 발전 기회를 이용해 관련 산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차오페이텐공업구는 텐진 빈하이신구와 더불어 국가급 종합개혁시범구이며, 발해만 앞바다의 대규모 간척 작업을 통해 대규모의 토지를 값싸게 마련하고 있음.

○ 빈하이신구에 세계 500대 기업 200여개 사가 입주한데 반해, 차오페이텐공업구에는 세계 500대 기업 중 몇 개사만 입주해 아직 잠재력이 큼.

○ 중국 북방 최대의 중화학공업기지로 육성될 계획인 차오페이텐공업구는 철강, 장비제조, 석유화학, 물류 중심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 이러한 차오페이텐공업구의 기능적 특징 및 대형선박의 출입이 자유로운 탕산항의 특징은 선박제조업체들에게 많은 진출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한편으로 대형항만의 건설에 따른 물류업의 성장은 동북아 물류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징진지도시권은 조만간 국무원의 비준을 받게 될 것이므로, 징진지지역 진출 시 한국 기업들은 각 지역의 기능을 잘 파악하여 지역선정을 해야 함.

- 가령 금융, 보험, 문화, 요식업 등 3차산업의 경우 베이징으로의 진출이 바람직하며, 선진제조업과 관련된 업종은 텐진으로, 중화학공업 및 농업과 관련하여서는 허베이성으로의 진출이 바람직함.

- 허베이성에는 염전이 많고 연해어업이 발달하였으며 유희지가 많으므로 소금가공, 양식가공 및 종자산업 분야의 진출도 유망함.
- 한편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을 놓고 일부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 징진지도시권 구역계획은 환보하이만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면도 있지만, 지역별로 항만, 산업, 관광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적인 구도로 발전해나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그러나 이 계획에 따라 배후기지로서의 허베이성은 베이징과 톈진의 도태산업을 유치해 저부가가치 중심으로 나아가고, 수자원을 비롯한 많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베이징과 톈진에 빼앗긴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함.
- 징진지지역은 주장(珠江)삼각주나 창장(長江)삼각주와 달리 지역 간 격차가 크므로 진정한 도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허베이성의 경제성장이 급선무임. 

부 록

부표 1. 허베이성 도시별 경제지표(2009년)

지표	허베이성 (河北省)	스자좡시 (石家庄市)	탕산시 (唐山市)	친황다오시 (秦黃島市)	한단시 (邯鄲市)	싱타이시 (邢臺市)
인구(만명)	7,034.4	977.41	733.9	287.24	942.8	698.88
면적(만km2)	18.8	1.6	1.3	0.8	1.2	1.2
GRDP(억 위안)	17,026.6	3,114.9	3,781.44	877.01	2,015.3	1,056
증감률(%)	10.0	11.1	11.3	10.0	11.2	10.0
1인당GRDP(위안)	24,283	31,869*	50,706	30,606	21,376*	15,170
도시화율(%)	31.0	41.2	33.5	42.0	32.3	23.3
도시민 1인당 실소득(위안)	14,718	16,607	18,053	15,458	15,961	11,922
증감률(%)	9.5	10.3	10.2	10.7	10.4	11.2
농민 1인당 순소득(위안)	5,150	5,977	7,420	5,516	5,323	4,467
증감률(%)	7.4	9.3	12.0	8.8	9.8	7.0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12,310.5	2,436.4	2,180.9	420.7	1,466.9	840.4
증감률(%)	38.4	41.3	60.1	38.6	39.2	39.3
소매판매액(억 위안)	5,764.9	1,190.6	958.6	283.3	606.0	389.6
증감률(%)	18.1	18.4	18.4	18.0	17.9	17.9
대외무역액(억 달러)	296.1	55.1	61.0	33.2	26.8	13.7
증감률(%)	-22.9	-21.2	-33.7	-33.7	-10.5	-20.3
지표	바오핑시 (保定市)	창저우시 (滄州市)	청더시 (承德市)	장자커우시 (張家口市)	량팡시 (廊坊市)	형수이시 (衡水市)
인구(만 명)	1,101.66	717.5	371.9	462.31	413.3	436.3
면적(만km2)	2.2	1.3	4.0	3.7	0.6	0.9
GRDP(억위안)	1,737.64	1,900.0	763.7	800.49	1,160.4	652.1
증감률(%)	11.0	11.3	11.0	10.0	10.8	9.6
1인당GRDP(위안)	15,840	26,481*	20,535*	18,942	28,076*	14,947*
도시화율(%)	26.4	30.3	26.5	32.0	30.0	22.7
도시민 1인당 실소득(위안)	13,555	14,519	13,282	13,246	18,333	13,142
증감률(%)	10.1	10.2	10.1	9.9	12.5	10.0
농민 1인당 순소득(위안)	4,682	5,000	3,926	3,559	6,834	3,918
증감률(%)	8.1	10.0	7.4	8.3	11.0	7.7
고정자산투자액(억 위안)	1,130.4	1,102.8	567.2	657.5	1,279.7	361.6
증감률(%)	41.3	39.2	45.3	59.4	38.1	50.7
소매판매액(억 위안)	730.3	490.7	218.2	274.4	354.5	268.7
증감률(%)	17.9	18.0	18.0	18.0	18.1	18.0
대외무역액(억 달러)	40.0	13.5	2.3	-	14.4	11.8
증감률(%)	-12.7	-29.0	-46.3	-	-1.6	-2.1

주: 1) 도시화율은 2008년도 수치로 비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였음.

2) *로 표시된 것은 필자가 계산한 수치임.

자료: 도시별 통계공보; CEIC; 『허베이경제연감2009』; 『중국 인구 및 취업 통계연감2009』; 보도 자료(면적).